

국토부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불가” 세계박람회 개최가 걱정된다

외국 관광객 유치 등 성공 개최 먹구름

국토해양부가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온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관련기사 3면)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은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광양항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토해양부는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과 관련,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해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은 현재 아무런 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은 경제성 분석(기준 1.00) 0.13, 정책적 분석(기준 0.50) 0.39 등으로 기준 이하에 머물렀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예산으로 35억원을 배정했으나 정부 측의 반대 입장 등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외국 관광객 유치 방안과 관련, 여수공항의 활주로를 연장하기 보다는 무안국제공항 등 주변 공항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함께 여수시와 상공회의소 등에서 요구한 시내 교통망 확충 사업에 대해서도 대부분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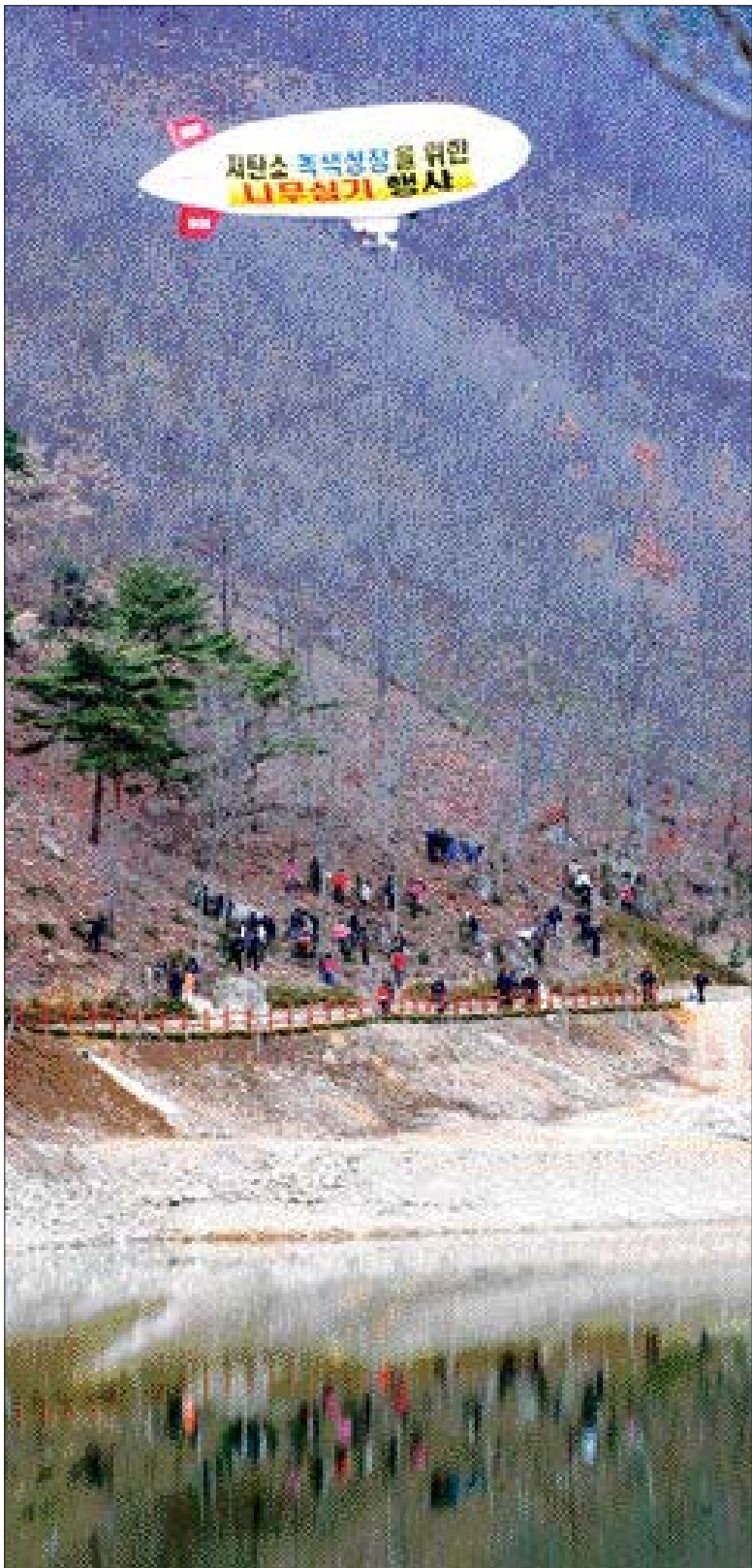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여수시,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극히 근시안적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수공항 활주로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국제선의 이착륙이 불가능해져 당장 여수세계박람회의 외국 관광객 유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물류 수송 등에서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광양항 활성화는 물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장기적으로 광양항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의 김성곤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는 물론 여수세계박람회 특위 등을 통해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와 전남도 등은 그동안 정부에 여수세계박람회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현재 2.1km인 활주로를 2.5km로 늘려 대형여객기의 이착륙이 가능토록 해달라고 건의해 왔었다. /임동욱 기자 tuim@



물에 비친 '녹색성장' 화순군청 공무원들이 11일 화순을 만연한 '도시 숲' 일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갖고 있다. 2ha에 달하는 숲에 동백, 편백나무 등 모두 2천500그루를 심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민 600명에게 가보고 싶은 곳 물었더니 “전남” 146명... “광주” 단 1명

광주가 국민 600명 중 1명 만이 가보고 싶은 곳으로 고를 정도로 외면받는 관광지로 나타났다. 반면, 다도해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전남은 제주에 이어 두번째로 선호하는 관광지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조사전문기관 코리아 리서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 내 국내 여행 현황(2008년기준)’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코리아 리서치’가 최근 철도회원 600명을 대상으로 한 관광지 선호도 설문 조사 결과(중복응답 포함) 향후 방문 의향 지역을 묻는 항목에서 단지 1명만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를 꼽았다. 광주

는 이 항목에서 대구, 대전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같은 질문에서 전남은 600명 가운데 146명이 꼽아 음식·풍광 등 경쟁력을 갖춘 관광지임이 확인됐다. 이 부문에서 전남은 전국 16개 자치단체 가운데 제주(151명)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광주의 경우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 관광인프라를 서둘러 확충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 광주 방문객 46명 가운데 단지 2명만이 광주를 ‘기억에 남는 여행지’로 든 데 비해 전남의 경우 방문객 156명 가운데 55명이 응답해 대조를 이뤘다. 기억에 남는 관광지 1위는 강원도였으며, 전남은 제주, 부산에 이어 4위에 올랐다.

최근 1년 내 국내 여행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541명 가운데 광주를 찾은 방문객은 46명(8.5%)에 그친 반면, 전남을 방문한 관광객은 541명 가운데 156명(28.8%)이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3不 정책 철회 아니다”

안병만 장관 폐지 가능성 시사 논란 예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11일 대입전형에서 보고서·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에 대해 “철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의 발언은 3불 정책의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현재로서는 3불 정책에 대한 재고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면 3불 정책도 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법제화해 불변의 법칙화하는 것은 앞으로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고려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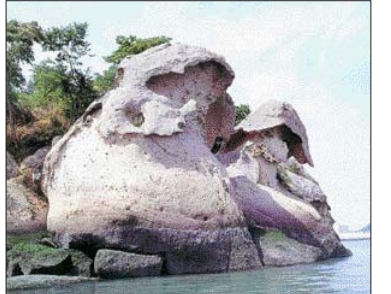
‘3불 정책’의 변화 주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세미나에서도 나왔다. 이날 대교협은 오는 6월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기

에 앞서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3불 정책’ 폐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참석자 대부분은 대입의 안정성을 위해 3불 정책의 기초가 유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고교 교사 등 일부 참석자들은 대입 자율화라는 명분 아래 대학들이 사실상 3불 폐지 시도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안 장관은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 발인과 관련 “조선대를 정상화하지 않겠다는 기사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조선대를 정상화해야 하기 때문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협조해가며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할 임시이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안 장관은 “조선대 정상화는 최종적으로는 사분위에서 결정할 것이다”며 “제일 먼저 정상화돼야 할 학교는 조선대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목포 갯바위 천연기념물로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11일 ‘목포 갯바위’(사진)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갯바위는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목포 용해동 영산강 하구에 위치한 풍화혈(風化穴·tafoni)이며, 사갈을 쓴 사람의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다.

풍화혈은 수분이 암석 내부로 쉽게 스며드는 부위(균열 등)에 발달하며, 수분의 부피 변화에 의해 암석 일부가 떨어져 나오는 현상이다. 갯바위는 인근 바다의 풍화 환경에서 순수 자연적인 과정으로 빚어진 자연 조각품이며, 암석 풍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가 아주 높다. /오광목기자 kroh@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CATS
2009.4.21-26 / 광주광역시
문의: (062)220-0341 / 1533-0736

한울정 "피부의 최적 균형을 이루는 쉼터"

아모레퍼시픽

한울정 피부관리실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남부대로 1111-1112 (신정동) 한울정 피부관리실

문의: 062-220-0341